

2000년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 열려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위한 국방정책 방향



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며 북측의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민간차원의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촉진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건없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대통령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위기대응 능력과 체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남북경제공동

체의 건설을 정경분리원칙 아래 민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교류를 다변화해 남북간 실질 협력관계를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기술과 자본을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과 결합하는 상호 보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00년도 국방정책추진방향을 보고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0년도는 새 천년을 시작하는 첫해로, 국가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동북아 지역에는 주변 4국간 협력과 견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일부 국가들의 군비증강 추진 등 안보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북한은 식량난·경제난 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

2000년도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김대중 대통령 주재하에 1월 5일 청와대에서 조성태 국방부 장관, 박재규 통일부 장관,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올해에는 현재 진행중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을 본격 추진해 「안정된 평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00년도 3대 기본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 남북 경제 공동체 건설
-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외교 강화

특히 김대통령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 관련, “지난 신년사에서 제안한 ‘국책연구기관간 협회’에 북한이 긍정



하면서도 강성대국의 기치하에 병영국가식 국가관리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비대칭 전력을 중점 증강하고, 긴장조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침투도발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서해도발 참패를 만회하기 위한 보복도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는 이러한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국가적 도약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보태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비, 한·미 연합 위기관리 및 대비태세를 공고히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연합 정보감시체제를 가동하여 북한의 활동과 도발 징후를 집중감시하고 위기관리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한·미 연합 작전계획 5027-98 시행태세를 확립하고 美 신속억제 및 증원전력의 적시전개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핵·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 가능한 군사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특히 서해에서의 보복도발 등 다양한 유형의 도발양상을 상정하여 이에 대비하고, 도발시에는 공·지·해 합동 작전으로 즉각 응징할 것이다.

셋째, 한·미 안보협력 및 對 주변국 군사외교를 강화하여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는 긴밀한 한·미 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감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으로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21세기를 지향하는 한·미 군사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변국과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한반도 안정과 지역 평화를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우호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갈 것이다.

넷째, 자주적 방위능력 향상을 위해 미래 첨단 정보과 학전에 대비하는 핵심전력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21세기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군사기술 잠재능력을 적극 제고해 나갈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군은 확고한 안보태세의 유지로 전쟁을 억제해 나갈 것이며, 도발시에는 이를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00년도 주요 국방 투자사업 편성 현황

정보 및 전자감시전력 등 6개 분야

2000

년도 국방 투자예산 규모는 '99 대비 2.2% 증가한 5조 3,437억원으로 북한 및 미래 위협에 동시대비 가능한 정보화 및 과학화된 군사력 건설을 위해 정보 및 전장감시전력 등 6개 분야(247개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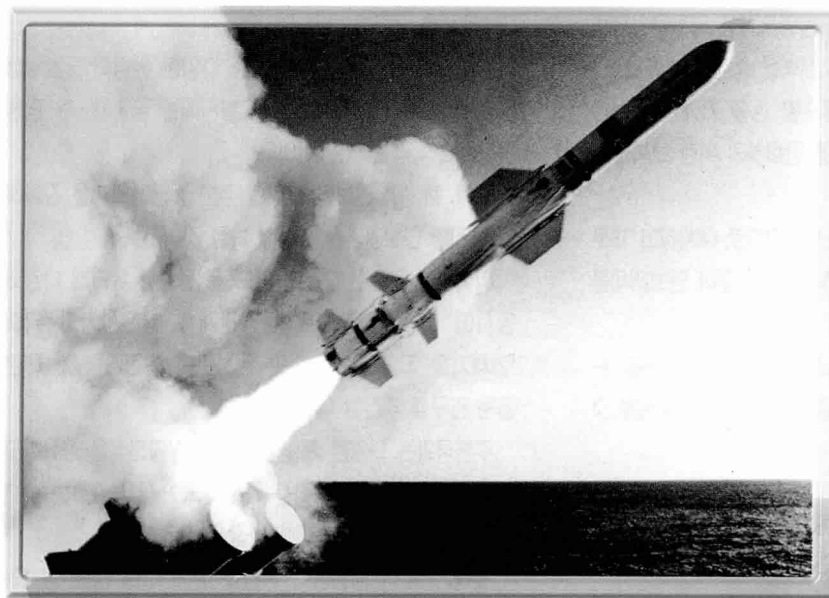
■ 정보 및 전장감시 전력 분야

500km 방위권내 전략 정보수집능력 확보와 전술적 전

장 감시능력 보강 등을 위해 19개 사업에 약 2,3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 신호 및 영상정보 수집을 위한 백두, 금강사업과 공중정찰 부대 및 정보대대 창설사업 등에 1,100억원 투자
- 전술적 전장감시를 위한 각종 감시 레이더(장거리 레이더, 해안감시 레이더, 저고도탐지 레이더)와 야간 감시 장비(항공용 야간투시경, 휴대용 야간투시경, TOD) 사업



함대함 하푼 미사일
발사장면

-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중인 KF-16 추가생산 및 636사업에 1,200억원 투자
- 국내에서 기술도입생 산으로 확보하는 상륙돌격장갑차사업에 100억원 투자

등에 1200억원 투자

■ 전략목표 타격 및 억제 전력 분야

전략목표 정밀 타격 및 입체 고속기동 능력 향상과 해상 및 공중우세권 확보능력 보강을 위해 38개 사업에 약 1조 4,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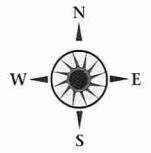
- 중심 작전 및 전략적 타격을 위한 대구경 다연장(MLRS) 및 전술 지대지미사일(ATACMS) 사업과 함대함, 함대공, 공대지 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유도탄(함대함 하푼, 함대공 유도탄, AGM-142, HARPY 등) 사업에 2,600억원 투자
- 적 중심해역에서 공세적 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차기잠수함 사업에 400억원 투자
- 입체고속 기동능력 향상을 위한 K-1 성능개량전차, 기동 및 정찰헬기, 대형수송함 및 중형수송기사업 등에 4,600억원 투자
- 해상 및 공중우세권 확보능력 보강을 위한 신형구축함 및 기뢰/중어뢰, KF-16 전투기 및 KTX-II 개발사업 등에 5,600억원 투자

■ 필수 기본전력 분야

현용 전력발휘 극대화를 위한 전력 보강과 저고도 방공 능력 향상 및 비정규전/대침투 작전능력 보강을 위해 58개 사업에 약 1조 3,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 현용 전력 보강을 위해 40km까지 사격이 가능한 K-9 155밀리 자주포, 기계화부대 지휘용 장갑차, 신형 소해함 사업 등에 8,700억원 투자
- 종합 통신지원이 가능한 전술통신체계(SPIDER) 및 차기 VHF장비와 지상전술 C4체계개발사업 등에 1,100억원 투자
- 저고도 방공능력 보강을 위한 단거리 대공유도무기(천마), 발칸 성능개량, 제2 MCRC사업 등에 2,800억원 투자
- 공중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전투기 야간투시경, 고정형 TACAN, 신형기상레이더와 호크 교전 모의기 사업 등에 100억원 투자
- 비정규전 및 대침투 작전능력 보강을 위한 원격무선 폭파장비, 해안경비정 및 상륙정, 고비도 통신보안장비사업 등에 300억원 투자



■ 전쟁지속/생존성 보장 전력 분야

전쟁지속능력 향상을 위한 군수지원 및 전술기지 공사와 화생방 상황하 생존성 보장을 위해 94개 사업에 약 1조 7,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 작전기지 보강 및 군수지원 능력 향상을 위한 부산작전기지, 3탄약창 확장, 유류탱크 지하화, 진해 건설거, 공군기지 복수 활주로사업 등에 1,400억원 투자

- 원활한 정비 보장을 위한 수리부속 확보 및 장비유지(야전, 창, 외주, 해외정비)사업 등에 1조 1,100억원 투자

- 각종 탄약 확보와 편제부족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에 3,900억원 투자

- 화생방 방호능력 보강을 위한 화학장비/물자사업과 화생방 집단보호시설사업 등에 800억원 투자

■ 연구개발 분야

미래전 대비 첨단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개발과 연구개발능력 제고를 위한 시험시설 및 장비 보강을 위해 32개 사업에 약 3,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 첨단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무인정찰기 실용개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및 함대함 유도무기 체계개발, 군위성통신체계 탐색개발, 잠수함 추진기관개발, 위성 영상정보처리기술개발 등 20개 사업에 2,400억원 투자

- 시험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해 연구실험실 능력보강, 해상/수중병기 시험장 및 통신/전자 시험장 건설 등 12개 사업

에 700억원 투자

■ 중앙지원 분야

FMS 차관 상환, 한·미 행정협정에 의한 방위비 분담, 방위산업 육성기금, KTX-II 정부분담금 등 6개 사업에 약 3,4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금년도 전력화되는 주요 장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상전력

- K-9 155밀리자주포, 사격지휘장갑차, 소형정찰헬기, 차기 VHF장비, 신형 AM/FM무전기, 휴대용 통로개척장비 등

*해상전력

- KDX-II(구축함), LYNX헬기, 상륙돌격장갑차, 해상감시레이더, 중어뢰 및 기뢰 등

*공중/국직전력

- KF-16 전투기, 기본훈련기, 대공제압무인기(HARPY), 금강장비, 기상레이더 등

적의 레이더에서 나오는 신호를 역추적해 파괴하는 HARPY 무인기



국방대학교 창설식 가져

국방대학원, 국방정신교육원, 국방참모대학교 통합

국방 대학교는 2000년 1월 6일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조성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내외의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기념식을 가졌다.

특히, 국방대학교는 21세기 미래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국가경쟁을 위한 최고 수준의 인재 육성과 다양한 국방분야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동일지역내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되던 국방대학원·국방정신교육원·국방참모대학교 등 3개의 교육기관을 국방개혁차원에서 통합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난 '98년 4월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조직·편성 및 종합교육계획 수립 등 제반 업무를 완료하였다.

새로 창설된 국방대학교는 산하에 안전보장대학원·국방관리대학원·합동참모대학 그리고 직무연수부를 두고 있으며 그 외 부설연구기관인 안보문제연구소와 합동교리발전부를 편성 및 운영하고 있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크게 1년 과정의 기본과정과, 2년 과정의 석사학위과정 그리고 각종 국방직무와 관련된 단기교육과정 등 13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학자격도 장교와 공무원 이외에 교육기관 및 학술단체·정부출연기관·언론기관·기업체까지 확대하여 연간 총 1천 4백여명의 국방분야 전문가를 배출하게 된다.

학교 창설식에서 조성태 장관은 종래의 교수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교육내용과 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고급지휘관 및 참모들의 임무수행방법과

미래의 군을 기획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우리 나라가 세계 일류 국가로의 도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방대학교의 창설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국방 최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국방교육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군의 최고급 장교를 교육하는 군내 최종 필수 교육과정으로서 국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국군 간부 교육체계를 완성하였으며, 국가 안보분야 최고의 전문종합대학으로서 국가 안보정책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또한 소장급 장군 직위 1개를 포함, 2백여명의 인력과 매년 28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도 있다.

